

출판산업과 출판타운

李種奭

동아일보 논설위원

출판산업이란 말이 실감나는 자리는 아무래도 대형서점들이다. 교보문고나 종로서적 등 이른바 대형서점을 찾았을 때 우선 놀라는 것은 하루가 다르게 엄청나게 불어나는 책의 양이다. 작년, 올해 들어서면서 경제불황의 터널이 깊고 깊게 뻗어 끝간데를 모를 판인데, 책은 여전히 쏟아져 나오니 출판계는 불황도 없는 것일까.

놀라운 것은 책의 양에만 있지 않다. 책의 품종이 다양화되고 책을 만드는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고 있는 것은 더욱 경이롭다. 정부의 개방화정책으로 중국이나 소련, 심지어는 북한의 원전까지 복제출판되고 있는 마당에 그쪽 책의 출판기술의 수준에 견주어보면 요즘의 우리 책들은 너무나 깔끔하고 세련되어 있다. 하필 그쪽 것과 비교하느냐고 화를 낼 정도다. 오히려 歐美나 일본 등 출판 선진국의 책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으리만큼 적어도 우리의 책은 그 양에 있어서나 장정이나 製冊 등 출판기술에 있어서만은 출판선진국에 이미 다달아 있다.

그러나 이같은 출판의 質量面의 급진장의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출판 종사자들의 작업여건이나 경영의 영세성을 살펴보면 또한 놀라게 된다. 몇천개를 헤아리는 출판사들 중에 몇 퍼센트가 제대로 규모를 갖춘 출판사인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아마도 90퍼센트 이상이 방 한칸에 몇몇 직원이 비좁게 도사리고 있는 영세출판사들일 것이다. 따라서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저들 책들의 태반은 이들 영세출판사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들이라 할 수 있다.

이들 수많은 영세출판사들의 합창이 오늘의 한국출판산업의 盛況이라 한다면 이는 분명 하나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영세자본의 영세규모들이 서로 모여 거대한 조화의 합창을 연출하는 이면에는 適者生存과 離合集散의 무서운 경쟁이 있기 때문이다. 3천, 4천의 출판사라고 하지만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중에는 이제 갓 간판을 내건 곳도 있고, 또 곧 간판을 내리고 어디론가 매몰되어버릴 곳도 적지 않다. 새 물결이 쳐오고 밀려나가는 물결이 상존하는 치열한 경쟁의 장이 바로 출판계가 아닌가 생각한다.

또 있다. 아무리 규모가 작은 영세출판사라 해도 눈달고 코달고 갖출 것은 갖춰야 한다. 책 쌓아둘 창고도 있어야 하고, 제작이나 유통과정의 분업화를 감당할 인력도 있어야 한다. 게다가 인쇄나 제본, 판매 등 외부와의 연계를 위한 수송편의 등 아무리 작은 출판사라도 감당해야 할 인적, 물적 부담이 엄청나게 큰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영세성에 따른 부담과 불이익을 극복해보려는 自救策이 지난 월초에 거론됐던 대규모 출판타운 운동이 아닌가 생각된다. 서울근교에다 대규모단지들 형성하고 출판사들과 관련산업체, 관련단체를 한데 묶는 한편, 종사자들의 주택 등 편의시설까지 한자리에 모으는 이 계획은 세계 출판사상 유례가 없는 기발한 생각이다. 이렇게만 된다면 오죽 좋으랴만, 이런 방대한 일이 얼마나 힘겨운 곡절을 겪어야 하는가를 생각하니 안타까웠다. 그러나 한달 남짓 지난 지금은 정부당국도 열성껏 귀기울여 주고 있고, 출판사들간의 연대와 호응도 매우 뜨겁게 일고 있다는 소식이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는 법이지만, 이처럼 시작이 순조로운 데에는 그만큼 연유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다름아닌 우리 출판계가 물심양면에서 그만큼 성숙해졌고, 우리 사회의 출판산업의 진흥에 대한 수요욕구가 그만큼 커진 때문일 것이다. 정보교환도 원활하고 출판기술을 나눠쓰고 인쇄·제본·판매 등 관련산업도 유기적으로 묶어놓는 대규모 출판단지, 꿈같은 얘기지만 그 꿈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可視化의 가능성이 손에 잡히고 있는 마당이다.

특집 '출판도시' 건설을 위한 심포지엄

2 출판도시, 우리에게 무엇인가/김병익

4 사회적 정당성 담보한 自救노력/김형국

6 가치있는 '문화적 환상'의 도전/이중환

7 문화환경 우선하는 '복합단지'로/강병기

8 각계 전문가 10인의 토론

표지인물 10 關化史연구 30년의 李光麟교수

시론 11 書評저널리즘에 대하여/潘星完

출판과 문화 12 시대조류 앞서가는 書評紙·誌들
—영국·미국·프랑스·서독·일본의 경우

서평 14 金容燮 「朝鮮後期 農學史研究」—金泳鎬

金仁宗의 「孤雲 崔致遠」—金重烈

15 方勵之 「방어지는 말한다」—송상용

李萬才 「實戰카피論」—金泰亨

16 유네스코 「외국의 과학교육」—趙熙衡

피터 브룩 「빈 공간」—金芳玉

시평 18 북한언어 연구의 현황과 과제/金敏洙

작품구상 19 「아제아제 바라아제 2」/韓勝源

출판화제 20 국학연구의 1차 자료 「文集」 집대성

지금 독서중 22 말프 트라인 「나에게서 구하라」—잡지기자 金利千씨

金容沃 「나는 불교를 이렇게 본다」—MBC PD 李基鎬씨

23 마르크 블로흐 「역사를 위한 변명」—직장인 최돈철씨

지금 번역중 23 이브 본노프와의 산문집 「건널목」—문학평론가 金正蘭씨

컬러 24 한국건축史家 申榮勳씨의 書架

세계의 출판 26 노인층 독자 겨냥하는 신간 활가·外

28 새로 나온 詩集

이달의 청소년도서 29 청소년이 읽을 만한 책

30 신간안내

38 200자 안내/화제의 책

40 신간목록

자료 42 「출판저널」 제 24~44호 주요目次

47 일간지 출판기사 색인

프리즘 48 이런 식의 독서추진을/李璟薰

독서퀴즈/정기구독 안내/독자서평 모집